

본당 소식

♣ 성가대 음악회(La melodia in primavera)

- 밀라노 한인 성당 성가대에서 준비한 음악회가 교중 미사 후에 있습니다.

PROGRAMMA

G. Puccini	O mio Babbino Caro dall'Opera <Gianni Schicchi>	Sop. MARIAFANCHEA Gaeun Lee
이흥렬 Heungryeol Lee	꽃구름 속에 Nella nuvole di fiori	Sop. CRISTINA Woojin Kim
R. Schumann	Er ist's È la primavera!	Sop. AGNESE Sohyun Ahn
임근수 Geungsu Lim	강 건너 봄이 오듯 Come la primavera arriva oltre il fiume	Sop. AGNESE Eunji Kim
G. Donizetti	Ah! rammenta, o bella Irene	Sop. CLARA Harim Jin
이원주 Wonju Lee	벚꽃나무 아래 Sotto albero di ciliegio	Bar. SERAFINO Dahyuk Lee
L. Ronald	Prelude <Cycle of life No. 1>	Sop. CELLINA Juhyeon Lee
정환호 Hwanho Jung	꽃 피는 날 Un giorno di fioritura	Ten. LUCA Junghyuk Lee
G. Puccini	Chi il bel sogno di Doretta dall'Opera <La Rondine>	Sop. JULIA Sohyun Kang
G. Rossini	La calunnia è un venticello dall'Opera <Il barbiere di Siviglia>	Bass. LUCA Kwangsik Park
Pianoforte CLARA Jiwon Jeong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2024년 3월 3일 (자) 사순 제3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주님 -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윤상돈 알렉산더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48.00€ • 교무금 120.00€

전례 성가

입당 : 118 (골고타 언덕)

봉헌 :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성체 : 187 (천사의 양식), 162 (성체 성혈 그 신비)

파견 : 280 (성 요셉 찬양하세)

전례 봉사

이번 주일(3일)	다음 주일(10일)
1독서: 윤상돈 알렉산더 2독서: 김산영 올리아 복 사: 변가인 헬레나, 김사빈 엠마	1독서: 이준서 다니엘 2독서: 최민욱 베로니카 복 사: 엄채운 엘리사벳,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

제1독서 (20,1-3.7-8.12-17)

그 무렵 1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2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3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12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13 살인해서는 안 된다. 14 간음해서는 안 된다. 15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16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17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서1,22-254)

형제 여러분,
 22 유대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23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24 그렇지만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25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복음 (요한 9,13-25)

13 유대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14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엮어 버리셨다.
 16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17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18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 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19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20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21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22 예수님께서서 죽은 이틀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23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24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25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 속에 들어 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자이신 주님,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 바치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그들의 용기와 선교 열정으로 온 교회를 불타오르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외세의 침략과 억압에서도 민족혼을 지키려 애써 온 저희 선열들을 위로하시며, 저희가 그들을 본받고 남북의 평화로운 만남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3. 새 학년을 맞이한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스승이신 주님, 배움의 터전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지식을 넓히고 지혜를 키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4. 밀라노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조주이신 주님, 저희 밀라노 교구 공동체에 희망의 영을 불어넣으시어, 추위를 이기고 피어나는 봄꽃처럼, 저희도 어려움을 굳건히 견디고 새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서 천상 양식을 받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이 성사의 신비를 날마다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